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본격화

### 도교육청, 양현초 등 9개 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선정 디지털 기반 학교 업무방식 개선 등 선도적 수업 운영 학교교육과정에 정용토록 4~10명 규모 리더십팀 구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에 본격 나섰다. 지난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등 총 9개교를 디지털 선도학교로 선정, 학생의 역량과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선정 학교로는 △전주양현초 △전주화정초 △전주은빛중 △군산초 △이

리모현초 △남성중 △수곡초 △지평선중 △장계초 등이다. 이에 앞서 선도학교는 이미 개발돼 있는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통해 수업 혁신을 선도하고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성공 모델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선도학교에서는 △에듀테크 활용 학생 참여와 상호작용 촉진하는 교수·학습방법 혁신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사 역할 변화 선도 △학생 맞춤형 콘텐츠와 교사의 학습 코칭 제공으로 기초학력 제고 △디지털 기반 학교 업무방식 개선 △방과후 에듀테크 활용 등의 수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주변 학교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디지털 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장·교감이 포함된 4~10명 규모의 리더십팀을 구성·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10일 전주 왕의지대에서 학교 리더십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선도학교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칭데이는 각 학교에 맞는 AI 기반 코스웨어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학습을 지

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10~11일에는 초·중등 교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확산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반 코스웨어 선도과정 특강도 운영한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시를 비롯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운영되는 선도학교는 데이터를 기반해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이라면서 "교사들에게 디지털 기술 기반의 다양한 교수학습 적용과 미래학교의 교사 역할 변화를 선도하는 좋은 모델이 전북 전체 교육에 확산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 미래에 도전·미래로 도약

### 도교육청, '전북 미래교육 포럼' 개최 세계시민교육 등 주제 발표·패널 토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7일 2층 강당에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북 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 미래에 도전하고 미래로 도약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1년간의 전북 미래교육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전북 미래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학교 현장으로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포럼은 전북 미래교육이 추구하는 4개 세션으로 구성, 전문가 4명의 주제 발표와 현장 교사 5명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전주교육대학교 정영식 교수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장상현 교육데이터센터장의 '교육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개별맞춤학습과 과학행정 지원 방안'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이인숙 교육운영부장의 '교육과정에서의 학생 주도성과 미래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이지홍실장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순으로 이뤄졌다. 패널로는 조영상 신의초 교사, 황세



지난 7일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3 전북 미래교육 포럼'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 전주중앙여고 교사, 윤승희 임실초 교사, 김서아 김제동초 교사, 정소운 덕일중 교사 등 5명이 참여해 전북 미래교육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열린 토

론을 벌였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전북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책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운영 방향에 대한 지속적 공감대를 통해 전북 미래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해 최선"

### 신원호 신임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지역사회와 협력·소통 통해 노력할 것"

전북도 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선거에 출마한 신원호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이 신임 전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7일 전북도 대안교육 지원센터 3층에서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



장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정기총회에서는 14개 시·군 협의회장이 2023년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투표로 통해 선출하였으며, 임기는 2024년 6월까지이다. 이날 선거에서 신원호 신임 협의회장은 '아이들이 미래, 행복한 우리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4개 시·군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소통을 위해 윈스톱 지원체계 구축 △지역 협의회장 역할 강화 연수 확대 △학교폭력 예방 방형의체 구성 △등하교 안전보행 추진 및 학교 체육복 무상교복 지원 △지역공동체와 MOU 체결 및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임임 협의회장은 전주시 북일초 운영위원장과 전북교육포럼 사무총장 26대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26대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전주시 학부모 연합회 운영위원, 일일산인성운동본부장,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집행위원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임 신 회장은 "아이들이 미래다. 행복한 우리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

혔다. /정은성 기자

## THE 아시아대학 평가 '국내 20위'

### 전북대, 교육·연구·국제화 등 5개 영역 점수 모두 올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The Times Higher Education)이 최근 발표한 '2023 THE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국내 20위에 랭크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결과로, 국가거점국립대 가운데 공동 3위다. 이번 평가는 아시아 60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25%)과 연구(30%), 피인용(30%), 국제화(7.5%), 산업소득(7.5%) 등 5개 분야 13개 평가지표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에 전북대는 5개 모든 평가 분야에서 점수가 지난해보다 일제히 상승

했다. 총점에서 30.01점으로 지난해 대비 1.5점이 높아졌다. 특히 논문 피인용과 국제화 등 2개 부문이 국가 거점국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양오봉 총장은 "최근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 이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전북대의 위상이 여러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 지역과 상생 발전 하는 플래그십 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세계적인 글로벌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에너지 저장장치용 전극 소재 개발

전북대 박성준 교수팀, 슈퍼커패시터용 전도성 고분자 전극소재 합성 성공

박성준 교수

수비르 박사과정생

다난자야 박사

"플렉서블 전자 소자 제작 용이  
저가 용액 공정에 활용 가능"

박성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기 고분자 기반의 에너지 저장소재는 기존의 탄소 및 금속 전극소재를 통해 구현하지 못한 플렉서블 전자 소자의 제작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특히 저가의 용액 공정에 활용 가능하므로 제작 비용의 절감과 휴대 및 착용이 가능한 소자 제작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에너지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스몰(Small, IF=15.153)' 최신호에 게재됐다. 인도 출신의 수비르 패티 박사과정생과 다난자야 파트라 박사가 공동 주저자로 참여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우수신진연구, 기초연구실 지원사업)과 교육부의 BK21-FOUR 인력양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정은성 기자

## 수학적 사고력 '쑥쑥'

### 중학생 100명 대상 '전북 수학 창의캠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8일 창조나래(별관) 회의실에서 '2023년 전북 수학 창의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학 창의캠프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분석하는 힘을 길러 줌으로써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캠프는 문제적 학생 수학올림피아드, 수리탐색대, 탈출! MATHROOM 등 전북 초·중등 수학교육 자료편찬연구회 교사들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학생들은 4인 1모둠으로 구성, 순차적으로 4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초등학교 100명이 참여하는 초등 수학캠프가 마련됐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수학 창의캠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추후 수학 창의캠프 실시 횟수를 늘리고 지역별로 수학 창의캠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많은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해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원·감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 5개 팀, 종합학술대회서 금상·은상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들이 한국정보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및 대학생논문경진대회에서 금상 2팀, 은상 3팀의 수상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르면 금상 수상 CATS 팀(김명준, 김명현, 김태일, 전현진, 최원민 지도교수 유철중)은 '검색엔진과 자연어 생성 모델을 결합한 문서 내 정보 처리 챗봇 서비스'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저장 문서가 많아질수록 관리 및 정보 추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소일복상 팀(조동우, 연호진, 김준호, 양예원, 지도교수 류덕산, 유철중)은 '다중 감정 분류 기반 감정 문장 생성을 이용한 챗봇 일기 서비스' 논문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기존 일기 앱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사용자에게 더욱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구상했다. 이어 은상 평요와 팀(전석찬, 김건웅, 이우창, 서민성, 지도교수 조재현, 유철중)은 '패널 컬러 진단을 통한 의상 컬러 조합 추천 서비스' 논문을 발표했다. 아그로 팀(남윤수, 김세창, 김재현, 김현수, 하창진, 지도교수 최순오, 유철중)은 '스스코드 평가 및 유사도 검사 시스템 : Code Odor Detect Assistant'을, 이월삼일 팀(이재현, 박지수, 성민기, 정세연, 지도교수 유철중)은 '딥러닝 기반 양방향 수어 번역 시스템' 논문으로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김명현 학생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철중 교수님과 팀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우 학생은 "팀원과의 협업을 통해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공직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예방 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7일 창조나래관(별관) 시청각실에서 2023년 공직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감사·민원 담당 공무원 및 임용 1년 이내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국민신문고, 기관별 신고 게시

판, 국민신문고 앱 등 민원 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별 업무 담당자의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 이해를 돕고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날 교육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사건 경향이 풍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강사로 참여해 △신고자 보

호·보상 제도 교육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교육 △질의를준 순으로 이뤄졌다. 이홍열 감사관은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누구든지 부패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특히 민원·감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